

## 8. 풍성한 삶의 원리: 성공적으로 실패하기!

- 실패는 끝이 아니다 -

본문: 창세기 50: 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 풍성한 삶을 가로막는 '실패'와 '좌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해볼까요?

만일 요셉이 그의 인생에서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상처로 안고 살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좌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인생이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좌절과 실패의 순간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다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의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실패와 좌절'의 감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해 전 제주 열방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저에게 생소한 강의였기고 강의를 듣는 사람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하나님! 오늘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강의와 말씀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는데 "상처"와 "관계"라는 단어였습니다. 열방대학에서 강의를 들으러 올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꽤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들일텐데, 왜 헌신의 자리가 아니라 제주 열방대학까지 오게 되었을까?

적어도 그들의 인생에서 6개월을 온전히 하나님께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기도할 때 떠오른 단어가 왜 "상처"였을까요? 그리고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을 하며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흐르는 상처의 피와 흔적들의 대부분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려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깨어진 관계를 훈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고 관계가 깨어질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받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상처를 주거나 받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흔적’과 ‘상처’는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분히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흔적은 상처가 치료되고 남은 자국을 의미한다면,

상처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아 아파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고, 때로 리더로서 교인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주어진 사명자로서 갈아간다는 것이 늘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간직하고, 상처를 흔적으로 바꾸어 가느냐는 것입니다.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삶의 최고치를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사람들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아파하는 것이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비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틀렸고 나에게 잘못했지만 ‘나는 참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삶에 ‘풍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역의 현장에서 너무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욱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핑계를 대며 깨어진 관계들을 정당화 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우리들 주변에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최대의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만족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상처를 받거나 주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나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상처는 우리의 삶에서 풍성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비 신앙적인 삶이 없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박히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고 아픈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픔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뀐 것이죠.

이용규 선교사의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아마도 얼마 전 사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더욱 와 닿아는 지 모르겠습니다.

### ■ 아직 죽지 않은 증상

아내는 자신이 우울증에 빠지고 힘들어한 근본 원인이 자기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화살을 맞았다고 해서 죽은 송장이 벌떡 일어나는 법은 없다. 상처 입었다고 벌떡 일어나 아파하는 것도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목사님께서 몽골 국제대학교 목요사역자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하셨다,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주신 정답이 바로 십자가 복음과 관련한 우리 문제의 정곡을 찌른다,

"제대로 짖 밟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입고 그 상처를 곱씹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부활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관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다. 문제는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데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다,

아내는 자신이 경험한 변화에 대해 호주의 시드니 영락교회에서 간증한 적이 있다,

"사실 선교사로 몽골에 왔는데 선교지에서 우울증으로 고생했다고 하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픔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내가 잘라서 문제가 없는 줄 알고 마음이 높아져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마음이 낮아집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꼭 만나주십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상처받은 나,

만족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죽지 않은 나에게 만족과 감사를 찾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만족을 나의 노력과 헌신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하게 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스스로 자신이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당화 하고, 가슴 속에서는 상처와 피 흘림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픔을 정당화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풍성한 삶의 원리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에서 시작해 부활의 기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는 하지만 ‘풍성함’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사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풍성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 ‘십자가’를 실패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부활과 연결시키지 못하

면 십자가는 분명히 실패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잘못 믿으면 늘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 유입니다.

‘실패’라는 감정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치명적일 때가 많습니다.

실패가 극복되지 않으면, ‘후회’라는 감정과 기억으로 우리 삶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죠.

피터 윌슨은 그의 책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후회는 단순히 ‘저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리 행동했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형태의 실망보다 후회가 더 견디기 힘든 법이다.”

‘실패’가 무서운 것은 ‘후회’의 감정으로 남아 더욱 강력한 기억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입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3-19장에서 다윗의 인생에 실패를 목격하게 됩니다. 실패한 삶의 결과로 다윗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은 말로 형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실수로 자식들이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깊은 후회의 감정이 찾아왔을까요?

“그 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만약’을 떠올리면 다윗은 얼마나 많은 후회에 시달렸을까요?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면서 욕망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 .

불륜으로 밧세바가 임신했을 때 잘못을 구하고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몰지 않았더라면. . .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싸움하기 전에 자상하게 신경을 썼더라면. . .

아마도 끊임없이 놓쳐버린 기회로 인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제 삼자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다윗의 모습이 안타깝지 않나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불행한 일들을 자신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될 일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늦었다고 생각해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생 후회를 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받는 죄책감에 더 무거운 돌을 올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실패한 인생에서 후회와 죄책감에서 나와야 합니다. 후회는 늘 더 큰 후회를 낳을 뿐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사수는 활시위를 당기기도 하고 놓기도 해서 과녁을 맞힌다. 뱃사공은 노를 당기기도 하고 놓기도 해서 물에 닿는다.”

이제 우리들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실패와 아픔들이 삶을 움추려들게 했다면, 이제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성공적 실패'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성공으로 바꾼 사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요셉의 인생은 그 이상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로 인해 겪었을 아픔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선'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 고맙게 느껴지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흔적'이 되어 '흔장'이 되어 빛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지나온 흔적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존 맥스웰의 [열매 맺는 지도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IBM의 창설자인 톰 왓슨(Tom Watson)은 1200만 달러의 회사 자금을 한 연구에 투입했다. 그러나 실험이 실패로 끝나자, 그 연구를 주도했던 회사 수석 간부가 왓슨의 책상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장님께서서는 제가 사직하길 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왓슨이 대답했다. "아니오, 사직서는 원하지 않소, 당신의 교육을 위해 1200만 달러를 투자했으니 이제야말로 당신이 일을 시작할 때가 온거요." 왓슨은 성공적인 실패라는 것을 이해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실패를 친구다!'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공적인 실패 혹은 실패는 친구다!' 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의 주인공 요셉을 통하여 보고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길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말씀만을 선택해보았습니다.

아마도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부당한 고난을 겪은 사람은 요셉일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결정적인 약점과, 죄악을 범한데 비해, 요셉은 형제들 안에서 잘난 척은 했을망정 불의와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꿈을 꾸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제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었고, 결국은 형제들에 의하여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도 요셉은 노예일망정 총명한 사람이었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불의한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직접 보는 불의한 고난들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간섭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이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환란, 고난, 시련 - 우리 모두가 가장 혐오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만들 때 사용하십니다.

저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기름을 붓고 축복해주신 때는 바로 그가 이방의 땅에서 노예의 멍에를 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의 시기에 주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이러한 사실을 요셉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실패와 환란 속에서 오히려 유익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실패와 환란 속에서 유익을 경험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함께하신다는 것은 사실 환란이 아니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난 해 성지순례를 하면서 참 많은 광야를 보았습니다.

광야는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면 견디기 힘든 곳인데, 그늘만 있으면 시원합니다. 견딜 만 한 곳이 광야입니다.

가이드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시원한 그늘,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한적한 곳’과 동일한 말이라고 합니다.

‘에라무스’는 한적한 곳이며,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만나는 곳입니다.

사실은 장소적인 의미의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만나는 곳은 어디서나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참 멋진 경험을 합니다.

먹을 것 걱정이 없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광야에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스갯소리로 여자들은 광야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신발과 옷이 헤어 지지 않아 쇼핑할 필요가 없어서 말이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그늘은 광야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해하려 광야로 내 몰았지만,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유익을 경험

한 것이죠. 모두가 실패라고 그의 인생을 정의할 때, 그는 실패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이죠.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타향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고, 그 어느 구절에도 요셉이 낙심하였다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원망하였다는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하인으로 팔려가서 주인 보디발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전옥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깊은 감명을 심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세상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일 뿐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한번 이런 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만, 우리와 똑 같아! 나는 저런 사람이 좋더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시다. “저 사람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그런데 이 ‘다르다’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다름’으로 인해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지는 몰라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 생활을 철저히 하는데 조롱거리가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경외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신앙인은 오히려 문제와 고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고백에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좋은 처지의 요셉을 데려다가 얼마간의 옥살이도 시키시시고 그런 후에 애굽에서 왕 다음 가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풍성한 삶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 아닙니다. 그런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인생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 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들 속에 있는 깊은 상처와 우리를 해하려 했던 사람들의 음모를 ‘오히려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공적으로 실패하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실패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상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우리가 신앙의 세계를 떠나서,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때 미국 야구계를 달구었던 제리 맥과이어라는 선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정말 깨기 힘든 미국 야구 Major league에서 홈런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홈런 이면에는 더 많은 수의 삼진 아웃이 있습니다.

그가 삼진 아웃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방망이를 조금 약하게 휘둘렀다면, 그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삼진을 많이 당할수록 홈런도 많이 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양준혁 선수, 이승엽 선수 역시 여기서 지나지 않습니다.

야구 용어로 계속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계속해서 방망이를 휘둘러라!

베이브루쓰는 714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그는 무려 1,330회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그는 소위 선수들이 겪는 슬럼프에 빠졌을 때도 미소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방망이를 휘둘러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깨달았죠, 만일 계속해서 방망이를 휘두르면 평균 타율 법칙에 의해 회복된다는 것을요, 실은, 제가 슬럼프 상태일 경우엔 투수에게 좀 미안합니다. 조만간 그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니까 말입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인생의 슬럼프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낙담가운데 있습니까?

미소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슬럼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의 선물로 같이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피난 생활을 할 때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의 문 열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성공을 위한 준비입니다. 요셉은 17세까지는 아주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나, 말을 가릴 줄 모르는 어느 정도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환난의 때에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준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는 방법을 달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본성이 착하고 잘 준비된 사람이었으나, 조금은 제멋대로인 요셉을 훈련시키시기로 마음을 먹고 환난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하나님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의를 행하다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들에게 찾아갔다. 팔림을 당했고,

순결을 지키려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그 영화에 보면, 불평을 토하는 큰 왕자가 등장합니다. 동생에 비하면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늘 귀증을 듣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왕의 태도는 너무나 확고합니다. "너를 이 큰 왕국의 왕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때로 여러분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실패들을 바라보면서 “불공평하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실패가 성공이 되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19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차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